

1. EPS 재활용 현지 견학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주민자치위원회 학생 및 학부모 40명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개동교회 학생 및 학부모 54명이 참가한 EPS재활용 현지 견학이 1월 18일과 1월 25일 각각 실시되었다.

주엽동 주민자치위원회 팀은 금성산업(잉고트, 펠릿 생산업체)과 신일프레임(액자몰딩 제조업체)을 개동교회 팀은 주원수지(잉고트, 펠릿 생산업체)와 하이우드(액자 몰딩 제조업체)를 각각 방문하여 EPS의 재생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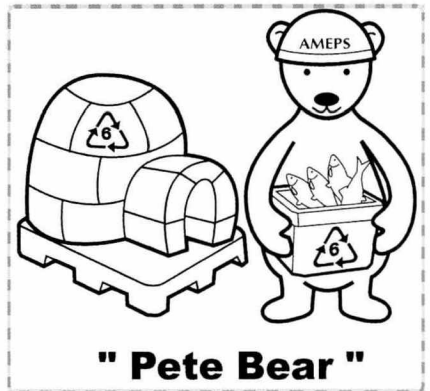
스티로폴의 재활용을 처음 접하는 많은 참가자들은 쓰레기로만 생각하던 버려진 스티로폴이 액자로 다시 태어나고 수출까지 되어 외화 획득의 효과 노릇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주부들이 대부분인 학부모들은 재활용의 시작이 깨끗한 분리배출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앞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할 것을 다짐하였다.

2. AMEPS PR팀 회의 개최

아시아 지역의 EPS 재활용촉진과 EPS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EPS생산자기구(AMEPS) 내에 효율적 홍보를 위한 홍보팀(PR Team)이 지난 2월 28일 홍콩에서 첫 회합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홍보팀은 우선 EPS의 장점과 재활용을 소개하는 기본적 내용의 영문 팜플릿을 AMEPS 예산으로 제작 배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운용중인 홈페이지(www.ameps.net)의 기술적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최신 자료의 보완도 서두르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친근한 대중 접근을 위한 홍보 마스코트로 스티로폴과 같이 흰색이며 스티로폴의 단열 이미지를 보여주는 북극곰(애칭 피터베어Pete Bear)을 다음 특별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추천하기로 했다.

홍보팀은 태국의 Mr. Apiwatt가 팀장으로 호주의 Ms. Ip과 협회의 신호식 실장이 참여하고있다.



" Pete Bear "

3. 환경행사협조



협회는 3월 16일 부산 시청 녹음광장에서 열린 2007년 첫 '시민참여 나눔장터' 행사에 스티로폴 재활용 액자 100개를 기념품으로 지원하였다. 근검절약과 재활용 시민의식 함양으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자 2003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주최/주관하는 이 행사는 이번이 36회 째이다.